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                 |                 |
|-----------------|-----------------|
| 31(土)           | 1(日)            |
|                 |                 |
| 구름 많음<br>11/24℃ | 구름 조금<br>13/27℃ |

#### News

- 뛰는 물가 장보기 두렵다 ②
- ‘美 쇠고기 반대’ 현수막 ③
- 광주소년체전 오늘 개막 ⑩

#### Books

- ‘美 쇠고기 고발’ ‘도살장’ ⑭

#### Entertainment



- 소설 원작 드라마 제작 불 ⑧
- 극장가 ‘인니들’ 전성시대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가물치 ⑬



## U대회 유치 ‘결전의 날’ 밝았다



광주의 국제도시 도약 시험대가 될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를 결정짓는 결전의 날이 밝았다. <관련기사 2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31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각 오후 5시30분)부터 벨기에 브뤼셀 플라자호텔에서 2013 하계 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조지 칼리안 FISU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스페인 비고(Vigo)→러시아 카잔(Kazan)→광주 등 3개 유치 신청도시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 순으로 진행된다.

27명의 집행위원들은 PT 발표와 심사가 완료되면 오후 6시(한국시각 새벽 1시)부터 표결에 들어간다. 1차 투표에서 과반(14표)을 얻으면 개최지로 선정되지만 해당되는 도시가 없을 경우 1차에서 3위를 차지한 도시를 제외하고 1, 2위를 대상으로 최종 투표를 실시한다. 개최 도시는 같은 날 밤 8시(한국시각 6월1일 새벽3시)에 발표된다.

### 오늘 선정 투표...내일 새벽 3시께 결정

### 유 문화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

### 광주시청 앞 광장 시민 철야응원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희범 유치위원장 등 U대회 유치위 관계자들은 30일 총회장에 광주 전시관을 설치한 데 이어 최종 PT 리허설을 갖는 등 마지막 전락을 가다듬었다. 리허설에서는 이날 초 FISU실사단이 보안을 주둔한 ▲선수단 수송문제 ▲재정확보 방안 ▲선수촌 건립 등 보완사항에 대한 치밀한 점검과 보강이 이뤄졌다.

시는 현지 전시관에 ‘2013 하계 U대회 광주에서’ 등 문구가 새겨진 다채로운 홍보물을 비치하고 광주의 강점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 집행위원들의 발길을 끌며 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FISU집행위원 27명이 참여하는 1차 표결에서 경쟁 3개 도시가 과반을 얻지 못해 2차 투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철저한 보안 속에 부동산 흡수 등 득표전략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는 3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광주시청 문화광장(야외음악당)에서 ‘U대회 유치 기원 철야 응원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대학생, 공무원 등 2천200



**광주전시관 설치**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를 하루 앞둔 30일 광주시와 유치위 관계자들이 벨기에 브뤼셀 플라자호텔에 광주 전시관을 설치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브뤼셀=윤영기기자 penfoot@

여명이 참여해 유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한데 모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브뤼셀=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 경기도 고양~ 광주 ‘절약운전’ 해봤더니...

## 급제동·급가속 등 자제 기름값 1만6천원 절약

휘발유·경유값이 1ℓ 당 2천원을 넘어서는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운전습관인 ‘에코 드라이브’(Eco Drive)가 주목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에코드라이브가 일반 주행에 비해 기름값과 연료량·연비 측면에서 최대 20%까지 아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앞, 화물차 운전 경력 8년째인 오정근(40)씨가 비교 시험 운전자로 선발됐다. 차종은 4.5t 화물트럭. 목적지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로 주행거리는 335km. 오씨의 옆자리에는 에코드라이브 강사가 동승했다.

오씨는 광주까지 오는 동안 평소 운전 습관대로 급제동·급가속은 물론, 잦은 기어변속을 하며 운전했다. 광주까지는 61.8ℓ 가 소요됐다. 1ℓ 기름값을 1천900원으로 잡을 때 11만7천420원의 기름값이 소요됐다. 1ℓ 당 연비는 5.42km였다.

오씨는 광주에서 출발지점인 경기도 고양시로 올라가는 상행선은 에코드라이브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다. 오르막길이면 급가속을 하지 않고 500m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서서히 높였다. 또 내리막길에선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정속 주행을 했으며 가능한 기어 변속은 삼갔다. 특히 앞지르기를 위한 급가속이나 불필요한 공회전은 강사가 일절 허용치 않았다.

에코드라이브 방법으로 운전한 상행선의 총 경유 소모량은 53.25ℓ. 일반주행 때 소비된 61.8ℓ 보다 연료 8.55ℓ(16.0%)가 절약됐다. 연비 효율은 1ℓ 당 6.47km로 일반주행 5.42km보다 1.05km(19.3%)가량 높아졌다. 기름값도 10만1천750원으로 일반주행 11만7천420원 보다 1만6천670원(13.8%)이나 절감됐다. 물론 시간은 에코드라이브식 운전이 15분 정도 더 걸렸다.

오씨는 “운전습관에 따라 연료 소비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급출발·급제동 등 잘못된 운전습관부터 고쳐야겠다”고 말했다.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에코 드라이브는 기름값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배기가스도 덜 배출하는 친환경적 운전 방식”이라며 “운전습관을 조금만 교정하면 절약할 기름만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일반주행과 에코 드라이브 주행 비교

|                       | 일반주행        | 에코 드라이브     | 절감효과     |
|-----------------------|-------------|-------------|----------|
| 총 경유소비량               | 61.8ℓ       | 53.25ℓ      | 16.0%    |
| 총비용<br>(1ℓ 당 1,900기준) | 11만7천420원   | 10만1천750원   | 13.8%    |
| 연비효율                  | 1ℓ 당 5.42km | 1ℓ 당 6.47km | 19.3% 향상 |

(4.5t 화물트럭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광주광역시까지 335km 주행시)

▲에코 드라이브=운전자가 스스로 친환경·안전·경제운전 행동을 최적화해 배기가스 감축, 사고 예방, 자동차 수명연장,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신개념 운전 방식이다. 주요 운전 수칙으로는 ▲기어 변속 적기에 하기 ▲관성을 이용한 정속주행 ▲교통 흐름 주시 ▲급제동·급가속 금지 ▲타이어 공기압 유지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등이다.

## 野 3당 ‘쇠고기 고시’ 憲訴

여야가 ‘쇠고기 고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18대 국회 임기 첫날부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30일 원내대표, 정권위의장 6인 회

담을 갖고 내각 총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야 3당 대표와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주권, 국민의 건강권과 신체안전권 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날 헌법소원과 고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국유방건강재단  
2008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  
2008년 6월 15(일) 오후 8시30분 (오후 9시30분 출발)  
광주합동종합경기장

주최: 한국유방건강재단  
주관: (주)아오제퍼시픽  
주최: 2008년 6월 15(일) 오후 8시30분 (오후 9시30분 출발)  
주최: 광주합동종합경기장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한국유방건강재단, 광주광역시,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